



다섯번째의

내 조국 서울에 봄이오면 이곳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예측없이 봄이왔고, 금년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봄이오면 이곳 워싱턴에도 봄이 올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꼭 다섯해전 3월5일. 김포국제공항을 떠나 未知의 美國移民길에 첫발을 내디디며 이곳 워싱턴에 정착할 무렵의 첫번째의 봄은 너무나도 차가웠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때만해도 조국 대한민국은 민선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저 강건너편의 꿈과 같은 일이었고,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 나의 세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되며 어렵다는 것을 익혀지는 나로서는 다섯해전의 봄은 진정 차가운 봄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Express 時代이기에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야할 것 같다.

정말로 금년봄은 빠가 자라고 굳어진 내조국과 억만리 떨어진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다섯번째로 맞는 봄이기에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美國法律下에서는 영주권자

가 5년이되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자격을 준다. 인제는 우리 Family도 法的으로 American citizenship을 받기 위하여 간단한 인터뷰와 법정에서의 신청서로 United States of America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어져 강산이 변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막내 Daughter가 소원하는 버지니아 주립대학(UVA: 제3대 미국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 고향에 설립한 학교)에 早期入學됨으로 3男 妹가 고스란히 UVA 동창생이 되었으니 이것도 작게는 강산이 변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런것들 보다는 더 큰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에 민선대통령이 뽑히는 민주주의 실현과 더불어 사상최다수국가로 참여하는 '88올림픽 章이 열리는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볼때 분명코 강산이 변한 것이리라.

더욱이 근간 Washington Post신문에서도 특필한데로 중공, 소련 그리고 동구 공산권 국가까지 무역이 뻗어나가고 있고 Made in Korea의 현대액셀·TV·마이크로오븐·VTR 등의 신제품이 미국시장에 돋보이는 세상이 되었으며, 미국이 첨단기술을 한국에 잘 안출

려고 하는 경쟁 과학기술 국가가 되어가니 이 또한 너무나 변한 세상이다.

특히 필자가 몸담고 있는 知的所有權分野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음은 時代的變化에 대한 要請인것 같다. 다섯해전 미국특허청에 한국출원이 70여건이던 것이 우리 BSKB 特許事務所에서만도 작년 87년도에 100여건이 넘었으니, 그리고 아스팔탐(다이어트 감미제)최신항생제·마이크로오븐·TV·VTR등에 대한 첨단기술이 속속 美특허청에서 특허를 따내고 있으니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적소유권 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美정부의 301조 발동시는 언제나 지적소유권이 거론되니 한국이 미국의 경쟁국가로 부상되었으니, 이어져 강산이 변한 징조가 아니겠는가? 요사이 한국의 특허사무소와 회사의 특허부 그리고 이곳의 주재사무소에서 특허상표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기쁜 비명이다.

일일이 답변해 주다보니 Co-nquiting fee는 누가 내며 모든 경비가 수익자 부담인 미국 Law firm의 System에서 FAX

봄을 맞으며



陳 今 燮

<在美韓國辦理士・藥學博士>

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키랴? 이것도 5년동안에 변한 지적 소유권분야의 한 현상이라 볼 때 세상은 많이도 변해간다.

그러나 딱 한가지 아니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요즘 駐美大使館을 통하여 우리 BSKB에 한국정부 일이 자주 맡겨지는데 얼마전 한국수사기관의 要請이라고 하고 미국의 특허권자 SOURS씨와 한국의 C會社가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Royalty base)한후 이들이 자본을 끌어드린 모양인데 이 특허와 계약서의 진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특허사기에 대한 일들을 보아왔던 나로써 한국인의 치부를 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자원해서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에 着手한 일이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특허증이 가짜요, 특허번호의 특허권자 명칭 특허일이 전연다르니 참으로 봄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옛이야기가 강산도 변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머리에 혼동이 온다. 최소한 한국 특허청에 가서 미국 특허를 대조해보면 금방 탄로가 나는 일인데 이것이 감추어진 일은 아직도 아니 변한 곳이 어

두운 곳이 하필이면 특허분야에 있는 것일까?

금년도 예의없이 찾아오는 다섯번째의 봄을 맞으면서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지적소유권분야에 강산도 변해감을 흐뭇해 하면서 5월중 서울 방문계획을 구상해본다. <○>

(워싱턴 BSKB 特許法律事務所에서)

한 국 발 명 특 허 협 회 신 간 안 내

발명의 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주요내용

- 제 1부 :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 제 2부 : 발명인이 되기 위한 10대 자세
- 제 3부 :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 제 4부 : 세계 발명사의 뿌리

국 판 : 200면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간

가 격 : 2,000원

판매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TEL 568-8263)